칩스앤미디어 (094360)

이제는 AI데이터센터와 로봇 분야까지 진출 (NDR후기)

ARIS
더 많은 보고서는 텔레그램 채널로
@ARIS1031

Report Summary

- 2003년 설립. 2015년 코스닥 상장
- 반도체 설계자산(IP) 전문 기업
- 3Q26 Review : 라이선스 매출 성장과 아쉬운 로열티 매출
- 로봇, 피지컬 AI 등 시장 진출과 새로운 고객사 확보
- 26년 매출액 303억원, 영업이익 72억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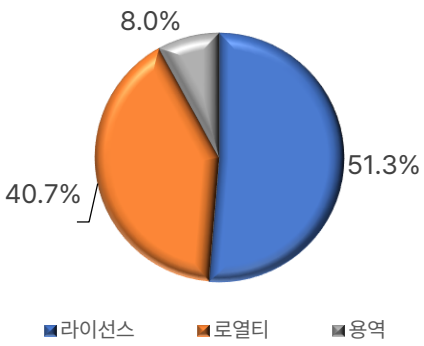
Info

기업탐방 일자	2026.10.29
발간 일자	2026.11.12
투자의견	N/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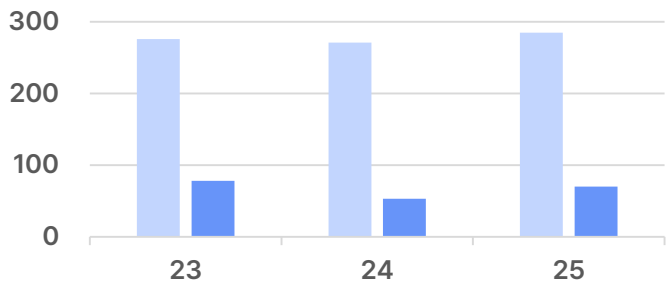
Company Data

시가총액	2,554억원
상장주식수	21,355,274주
액면가	500원
외국인 소진율	1.59%

매출 비중(연결)



최근 3개년 매출 추이(연결)



단위 : 억원

Analyst

이재모
charisma38@naver.com
정민희
b2point0@naver.com

기업 탐방 사진



ARIS
INDEPENDENT
Analysis • Research
Investment • Stock

칩스앤미디어 (094360)

기업 개요

동사는 2003년 설립되어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설계자산(IP)전문 기업이다. 비디어 코덱 IP의 연구개발과 라이선스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영상처리용 NPU IP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매출비중은 라이선스 51.3%, 로열티 40.7%, 용역 8%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주주는 한투반도체투자 31.15%, 텔레칩스 7.22% 등이다.

사업의 개요

동사는 반도체 설계자산 중 영상처리 기술에 특화된 글로벌 멀티미디어 IP 전문기업이다. 주력 제품은 코덱 IP로, 반도체 설계 업체에 영상 압축·복원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매출은 라이선스, 로열티, 기술지원 용역으로 구성된다.

라이선스 매출은 고객사가 반도체 칩을 설계·개발할 때 필요한 영상처리 IP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로열티 매출은 해당 IP가 적용된 반도체 칩이 양산 및 판매될 때 판매 수량에 연동해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 이후 고객사의 칩 개발과 상용화까지는 2~3년이 소요되며, 양산 물량이 증가할 수록 반복적인 로열티 매출이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전방 산업은 스마트폰, 디지털 TV, 데이터센터, 자동차 전장, 영상보안 등이며, 최근 AI 반도체와 로봇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NXP, 텍사스인스트루먼트, 텔레칩스 등 글로벌 팹리스업체 등 약 160개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 칩스앤미디어 기업 개요

기업개요

회사명	㈜칩스앤미디어
대표이사	김상현
설립일	2003. 03. 06
자본금	108억 원
임직원수	89명(2026.9.30 기준)
주요사업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본사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09 7층, 8층
홈페이지	www.chipsnmedia.com

R&D 인력 현황



전체 인력 중
R&D 인력 비중
72명

대표이사소개



이 호 부 사장	CFO	· 서울대 경제학과 · 삼성물산(주) 재경팀 · 칩스앤미디어(2004~현재)
강 원 모 상무	CHRO	· 중앙대 경영학과 석사 · BOE 하이디스 · 칩스앤미디어(2007~현재)
최 주 환 이사	CSO	·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 오픈엣지테크놀로지(2018~2024) · 칩스앤미디어(2005~2017, 2025~현재)

자료 : 칩스앤미디어

칩스앤미디어(094360)

3Q26 Review: 신규 라이선스 성장과 아쉬운 로열티 매출

2026년 3분기 연결 매출액 71.6억원(YoY +8.2%), 영업이익 16.6억원(YoY +8.7%)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23.1%로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1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신규 라이선스 계약 확대에 힘입어 성장했으나, 환차손과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 영업외 요인이 당기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사업부문별로 라이선스 매출액은 44.3억원(YoY +33%), 로열티 매출액은 21.7억원(YoY -26.5%), 용역 매출액은 5.7억원(YoY +66.8%)을 기록했다. 라이선스 성장은 국내 주요 팹리스의 차량용 반도체 신규 프로젝트와 K-온디바이스 AI 사업 관련 첫 계약, 중국 AI SoC 및 휴머노이드 로봇용, 신규 IP 공급이 견인했다. 글로벌 IT 기업의 모바일 반도체용 신규 계약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3분기 누적 라이선스 매출액은 약 110억원으로 연간 1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로열티 매출은 IP 카메라와 셋톱박스 등 기존 고객사의 반도체 생산 감소로 역성장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급 부담으로 고객사의 제품 원가가 높아지고 생산 및 판매가 위축되면서 로열티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중장기적으로 기존 자동차용 반도체 고객사인 르네사스와 암바렐라 등 신규 칩 양산이 중요한 실적 변수다. 동사는 28년 전후 해당 고객사들의 칩 판매 확대에 따른 추가 로열티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 매출액 현황(26년 3분기)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	분기별			연도별		
	2026.3Q	2025.3Q	YoY	2025 FY	2024 FY	YoY
매출액	7,162	6,617	8.2%	28,467	27,075	5.1%
라이선스	4,431	3,332	33.0%	17,065	15,193	12.3%
로열티	2,165	2,946	-26.5%	10,052	10,516	-4.4%
용역	565	339	66.8%	1,350	1,367	-1.3%
영업이익	1,657	1,525	8.7%	6,964	5,281	31.9%
당기순이익	-605	2,179	적자 전환	5,923	10,009	-40.8%

자료 : 칩스앤미디어

칩스앤미디어(094360)

로봇, 피지컬 AI 시장 진출과 신규 고객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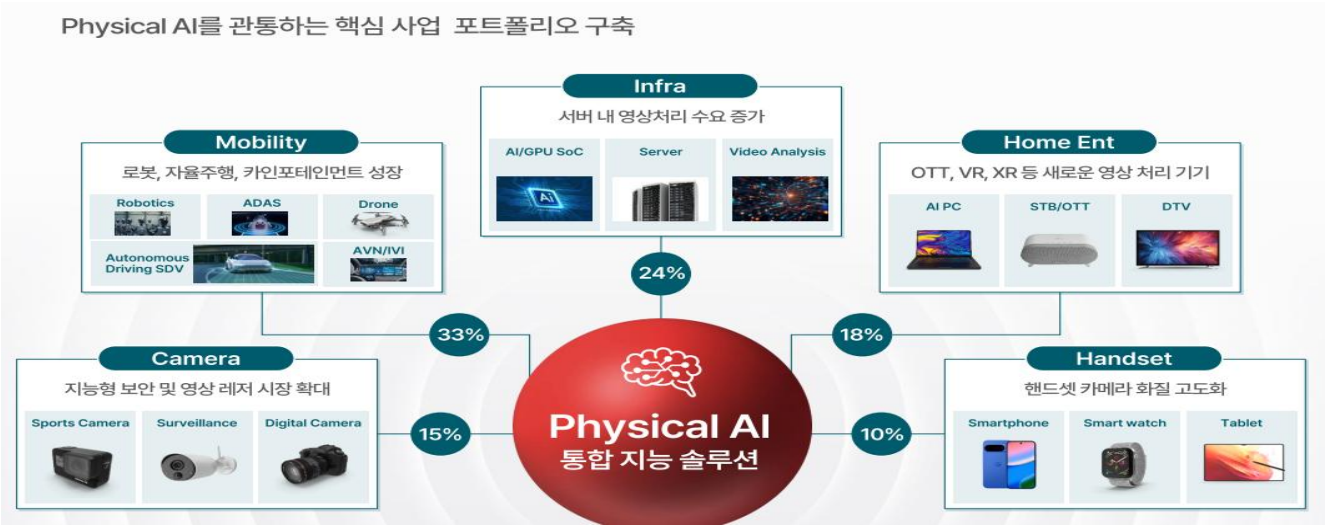
기존 스마트폰과 디지털 TV 중심의 비디오 코덱 IP 사업을 자동차 전장, AI 데이터센터, 로봇, 드론, 스마트팩토리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로봇과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카메라를 통한 사물 인식과 공간정보 분석, 실시간 영상처리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사의 멀티미디어 IP는 영상 데이터의 압축과 복원과 효율적인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설계자산으로 피지컬 AI 시장 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가장 주목할 분야는 로봇용 AI 반도체 시장이다. 동사는 중국 호라이즌 로보틱스와 D-로보틱스 등 자동차 및 로봇용 AI 반도체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해당 사업에서는 이미 로열티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청소기, 산업용 로봇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AI 인프라 시장에서도 신규 고객사 확보가 진행되고 있다. 2019년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 이후 글로벌 GPU·NPU 기반 AI SoC 개발업체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K-온디바이스 AI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미래차, 로봇, 방산, 가전 분야의 자체 AI 반도체 개발이 증가하면서 신규 라이선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IP 포트폴리오 확대도 성장동력이다. 영상처리 특화 NPU인 WAVE-N은 범용 NPU 대비 작은 칩 면적과 낮은 소비전력이 강점이며, AI-ISP는 화질 개선과 노이즈 제거, 객체 검출 기능을 통합한 솔루션이다. 글래스 이미징과 아크소프트 등 AI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해 NPU와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결합한 통합 IP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 칩스앤미디어 사업포트폴리오



자료 : 칩스앤미디어

칩스앤미디어(094360)

실적 및 재무 상황

① 2026년 3분기 누적 매출액 200억원, 영업이익 30억원, 당기순이익 29억원 기록
② 시장 추청지 매출액 303억원, 영업이익 72억원, 당기순이익 76억원
③ 2026년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 23.1%, 순현금 약 322억원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최근 3개년 매출 추이(연결 기준)

	2024	2025	2026(E)
매출액	271	285	303
영업이익	53	70	72
당기순이익	100	59	76

자료 : 독립리서치 ARIS　　단위 : 억원

체크포인트 및 리스크요인

➢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동사는 2026년 9월 28일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29일 ~ 2027년 3월 29일까지이며, 장내 매수 방식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이번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은 유통주식 수 감소와 주당순이익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용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며,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해당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작성자는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을 발간 전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간 후에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아리스(ARIS) 에 있습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및 복제,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